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1-46 호 / 2001년 10월 17일 발간

일·싱가포르 FTA,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타결될 듯

작성자 : 정인교 FTA 연구팀장
김양희 부연구위원
권 율 전문연구원
【ikcheong@kiep.go.kr, ☎ 3460-1208】

主要內容

▣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일본·싱가포르간 FTA 협정이 이번 상하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될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최종타결, 양국 정상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양국간 민감분야가 많지 않아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관세철폐, IT분야 협력, 금융서비스, 전문적인 노동인력 이동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번 일본의 싱가포르와의 협정 체결은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본의 추가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큼.

- 즉, 농업분야가 제외된 현재의 양허안을 개선시키는 것이 국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외 다른 FTA 상대국이 이러한 양허안을 수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이 매울 클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칠레와의 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해야 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세계경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의 「KIEP동향분석속보」를 2001년 9월 28일부터 「KIEP 오늘의 세계경제」로 변경해 발간합니다.

1. FTA 논의 경과 및 최근 동향

□ 일·싱가포르는 양국간 FTA 협정인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주요 내용이 거의 타결된 것으로 알려짐.

- 동 협정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동 특허제도, 전자인증제도, 인력이동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임.

□ 일·싱가포르 FTA 체결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99년 12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와 고척동 총리와의 합의로서, 이후 양국 FTA 공동연구가 추진되어 2000년 9월 FTA 협정 추진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양국 총리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공식합의한 후, 금년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9월초 제3차 협상을 통해 연말까지는 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공표하였음.

□ 양국은 오는 10월 20-21일 개최되는 상하이 APEC 정상회담중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마지막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동 협정의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일정으로는 연말까지 협정 체결, 내년초 국내 절차 완료후 내년 4월 협정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추진 배경과 협상에서의 주요 이슈

□ 양국은 상호 경제 및 산업구조의 약점을 보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교역규모가 적고 민감분야도 많지 않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향후 본격화될 주요 교역대상국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모의실험을 해보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중심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1970년대 이후 일본은 싱가포르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고, 투자면에서 제2위 투자진출국으로서 작년 한해만 1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한편, 이러한 양국간 협정 추진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칠레와의 FTA 추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일본의 경우, 한국과의 FTA 체결 논의의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한국이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가자 대안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 양국은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FTA 체결 검토를 실시하던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정부의 담당부서가 직접 검토작업을 수행하였음.

- 싱가포르도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요청하였고,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 추진, 경제적 실익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 비록 양국간 민감분야가 많지 않아 협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일부 분야는 상당한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협상 진전이 부진했던 분야는 교역재의 관세철폐, IT분야 협력, 금융서비스, 전문적인 노동인력 이동 등임.

- 특히 일본측은 싱가포르의 금융부문 개방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기 타결에 장애 요인으로 부각된 바 있음.

- 싱가포르는 여타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측의 농수산물 자유화 유보입장에 우려를 표명해 왔음. 또한 싱가포르는 그동안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들과 다차원적으로 쌍무적인 FTA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일본과의 협상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측면도 있음.

□ 그런데 이번 4차 협상을 통해 양국이 전격적으로 FTA 협정에 합의하게 된 결정된 계기는 최근 美 테러 사태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국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짐.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하고, 3/4분기에는 급기야 -5.6%를 기록함으로써 독립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3. 양국간 FTA에서의 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 이슈

□ 금번 합의에서 양국간 교역(금액기준)은 98% 이상 자유화될 전망으로, 명분상으로는 WTO 24조의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의 자유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었음.

- 싱가포르는 자동차, 생수 등 소수의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무관세화를 달성하고 있어,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존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던 농업분야, 석유화학 일부 품목, 피혁제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발을 의식, 이를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킴.

□ 양국의 무역자유화 구체적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분석에 애로가 있으나, 민감한 상당수의 품목이 자유화 예외로 분류됨으로써 협정 체결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체제의 규범(GATT 24조) 위반 가능성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협정이 체결되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농업분야 대다수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양적인 기준(자유화 품목의 교역액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질적인 기준(특정 산업 제외 금지)의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상호특혜적인 관세 대우를 부여하면서도 협정의 명칭은 경제연계협정(EPA)으로 되어 있어, GATT 24조의 적용 여부도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지난 9월 3차협상에서 양국간 입장차이가 큰 분야로 알려졌던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국내영업부문 제한의 철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양국은 원산지규정에 있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싱가포르는 가공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원하는 반면, 일본은 싱가포르가 중국, ASEAN산 농산물을 단순가공하여 자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원산지규정을 설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4. 평가 및 시사점

□ 일·싱가포르 정상들은 이번 상하이 APEC 정상회의중에 별도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금융분야 등 아직 미타결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FTA 연내 체결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임.

- 이를 계기로 일본은 멕시코, 미국, 호주 등 그동안 검토되어 오던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번 일본의 싱가포르와의 협정 체결은 일본의 대지역주의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본의 추가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큼.

- 즉, 일본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불완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유화 의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자유화 수준을 능가하는 협정의 체결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FTA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라고 칭하고 있음.

□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싱가포르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AFTA, AIA 등 역내 지역협력협정을 약화시키고, 주요 역외국가들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됨.

□ 마지막으로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이 매울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칠레와의 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해야 하며, 동 FTA가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자유화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